

한국 신학교 상담대학원의 커리큘럼 연구

김 준 수 교수

(D.Min.,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국문초록

요즘 한국사회에는 상담에 대한 관심이 많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지난 50년간의 급속한 경제발달과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하여 우리들은 많은 정신적인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다. 너무나 급속하게 변하는 사회 구조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심각한 정신적 위기와 혼란을 겪게 된다. 세대간의 갈등과 이혼의 급증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개인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현실에서 상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담과 상담교육이 급속하게 뿌리내리게 되었다. 아직까지 상담교육에 비해서 상담전문가들이 사역할 장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육체적인 고통을 해결받기 위해서 의사들을 찾아가듯이 마음의 고통을 위해서 상담자를 찾는 사회적인 풍토가 뿌리 내릴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 상담교육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아직 걸음마를 내딛는 단계에 있다. 특히 신학교에서 행해지는 상담전공의 대학원 과정의 교육은 더욱 미흡하다.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상담교육의 커리큘럼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일은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복음주의상담학회에 소속된 학교들의 상담전공 커리큘럼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담교육의 실태를 간접적으로나마 분석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미국의 신학교 상담대학원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신학교 상담교육과의 비교를 통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셋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신학교 상담교육의 커리큘럼의 재조정을 시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한다. 기독교대학 또는 신학교에 소속된 상담대학원 또는 일반대학원의 상담학과의 요람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며 개설된 시간표를 참고로 사용한다. 연구의 범위는 복음주의상담학회에 소속된 학교를 중심으로 여섯 대학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 대상

학교는 국제신학교 상담학과,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 상담학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 한영신학교 상담대학원이다(가나다 순 기술). 이러한 국내 상담대학원과 비교하기 위해서 미국의 카버난트신학교(Covenant Theological Seminary), 덴버신학교(Denver Seminary), 풀러신학교(Fuller Seminary), 리폼드신학교(Reformed Theological School), 트리니티신학교(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웨스트민스터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등 여섯 학교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중심단어 : 상담, 교육, 신학교, 커리큘럼, 역사

I. 여는 글

요즘 한국사회에 상담에 대한 관심이 많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지난 50년간의 급속한 경제발달과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하여 많은 정신적인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다. 너무나 급속하게 변하는 사회 구조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심각한 정신적 위기와 혼란을 겪게 된다. 세대간의 갈등과 이혼의 급증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심리적인 불안정 속에서 상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담과 상담교육이 급속하게 뿌리내리게 되었다. 아직까지 상담교육에 비해서 상담전문가들이 사역할 장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육체적인 고통을 해결받기 위해서 의사들을 찾아가듯이 마음의 고통을 위해서 상담자를 찾는 사회적인 풍토가 뿌리 내릴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 상담교육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아직 걸음마를 내 딛는 단계에 있다. 특히 신학교에서 행해지는 상담전공의 대학원 과정의 교육은 더욱 미흡하다.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이 된다. 이를 위해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상담교육의 커리큘럼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일은 매우 필요하다.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본 연구는 새로운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는 상담 교육을 위해서 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에 소속된 학교들의 상담교육을 파악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상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학문이다. 각 신학교에서도 상담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비율이나 지원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한국 교회와 사회에 필요한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대부분 선진국의 상담교육을 그대로 흉내 내거나 답습하는 수준이다. 그러기에 상담 전공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신학교에서 실시하는 상담교육은 일반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상담교육과 구별되어야 한다.¹⁾ 상담은 신학과 무관하게 교육될 수 없다. 그러기에 신학교에서 교육하는 상담은 기독교상담이라는 특수한 영역이다. 기독교상담이 일반 상담과 어떻게 유사하고 구별되는지는 각 신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상담교육의 철학과 목표에 의해서 결정된다. 특히 복음주의 신학을 교육하는 신학교의 상담 커리큘럼은 신학적인 특성을 강조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대 사회는 이론 중심적인 교육보다는 실제의 상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임상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상담교육은 이론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인 여건 상 상담의 실체가 제대로 교육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임상교육의 약화는 사역자들이 상담의 현장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도록 만든다. 대학원에서 상담교육을 받았지만 내담자를 만나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상담자를 양성하게 된다. 아직 우리의 상담교육이 이론의 정립이나 실천에서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본 연구를 통하여 그 실상을 분석하고 그 대안 제시의 가능성을 탐색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복음주의상담학회에 소속된 학교들의 상담전공 커리큘럼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담교육의 실태를 간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미국의 신학교 상담대학

원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신학교 상담교육과 비교를 통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셋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신학교 상담교육의 커리큘럼의 재조정을 시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한다. 기독교대학 또는 신학교에 소속된 상담대학원 또는 일반대학원의 상담학과의 요람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며 개설된 시간표를 참고로 사용한다. 연구의 범위는 복음주의상담학회에 소속된 학교를 중심으로 여섯 대학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 대상학교는 국제신학교 상담학과,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 상담학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 한영신학교 상담대학원이다(가나다 순 기술). 이러한 국내 상담대학원과 비교하기 위해서 미국의 카버난트신학교(Covenant Theological Seminary), 덴버신학교(Denver Seminary), 풀러신학교(Fuller Seminary), 리폼드신학교(Reformed Theological School), 트리니티신학교(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웨스트민스터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등 여섯 학교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²⁾

한국과 미국의 대학원 선정은 먼저 신학적으로 유사한 학교들을 선정하였다. 미국에서도 복음주의 계열로 분류되는 학교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미국 상담교육의 역사가 오래 되었고 한국의 상담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한국 상담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미국 대학원의 상담교육 제도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한국 상담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공부한 과목들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게 된다. 이들의 커리큘럼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실정에 맞는 상담 교육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의 상담교육이 단순하게 미국의 커리큘럼을 답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학문이 시작되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축적된 상담 선진국의 노하우를 받아들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 상담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차별화된 교육의 방향과 철학이 세워져야 한다. 특히 신학교에서의 상담교육은 단순한 상담 교육 뿐 아니라 신학적인 교육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교회와 사회가 어떠한 상담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상담교육은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른 상담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II. 펴는 글

1. 미국신학교 상담대학원교육의 역사와 커리큘럼

1) 미국신학교 상담교육의 역사

미국 신학교에서의 상담교육은 미국사회의 전반적인 상담문화의 발전에서 그 흐름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은 1,500명 이상의 심리학자들과 수백 명의 임상심리학자들을 고용해서 병사들의 정신상태를 점검하고 적군의 심리를 연구하게 하였다. 전쟁 후에는 미국은 높은 경제 성장과 함께 자아실현 즉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추구하는 욕구가 팽배하였다. 학교나 병원 또는 일반 기업 등에서는 어떻게 인간의 자아실현을 통해서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인간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을 대거 고용하게 된다. 미국 사람은 전쟁 후의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심리학을 통한 인간의 심리문제 해결과 행복 추구 그리고 유토피아의 건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까지 이르렀다. 1940년에 3000명이던 임상심리학자들이 1957년에는 16,000명으로 급등하게 된다. 그해에 전 세계에 1,400명의 정신분석 심리치료학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미국인들이었다. 미국 사람들도 심리상담자를 찾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미국 사람들의 심리학에

대한 관심은 미국의 문화에 영향을 주었고 할리우드의 영화를 통해서 또는 대중심리학의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더욱 보편화되면서 심리학 만능주의 사회를 형성하였다.³⁾ 특히 상담자 자격증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1959년부터 자격증을 가진 임상심리상담자들의 상담을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상담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심리치료 상담자들 중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적인 심리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심리치료를 기독교와 접목시키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50년대에 기독교 심리치료 상담자들이 모여서서 기독교심리협회(Christian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tudies)를 조직하였다. 1950년도 후반에 내레모어(Clyde Naramore)가 복음주의 교회에서 잘 알려진 심리치료학자가 되었다. 그는 내레모어기독교재단(Naramore Christian Foundation)을 만들고 로즈메드 임상심리대학원(Rosemead Graduate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를 세워서 기독교심리상담자들을 교육하였다. 이 학교는 지금 바이올라대학교(Viola University)안에 임상심리대학원(Rosemead School of Psychology)이 되었다. 그 후 1965년도에 풀러신학교 임상심리대학원(Fuller Theological School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를 시작하였다. 1972년에 미국심리협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인정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 임상심리상담자들을 배출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즉 심리학과 신학을 서로 조화시켜서 치료하는 상담자들을 배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특히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직업을 얻기가 유리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학원에서 상담을 공부하려고 한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상담자의 직업을 원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일반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기보다는 신학교에서 상담교육을 받기 원한다. 이러한 상담교육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의 많은 신학교에서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였다. 이 뿐 아니라 자격증 없이도 상담을 할 수 있는 교회나 선교지 또는 기독교 기관에서 사역할 상담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도 활성화 되었다.

2) 미국 신학교 상담전공 커리큘럼

미국 신학교의 상담교육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대학원 상담교육을 통해서 국가자격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고 둘째는 교회나 선교지 또는 기관에서 사역할 상담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미국의 상담사 자격증은 각 주(州)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은 첫째 국가자격고시(National Counselor Examination)의 합격 둘째 대학원의 상담학위 그리고 셋째 평균 2,000시간의 상담실습과 이 중 1000시간의 상담과 67시간의 슈퍼비전 시간이다. 자격증을 위해서 대학원에서 이수해야 하는 과목들은 구체적으로 과목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8가지 영역의 과목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고시에서 치르는 8과목과 동일하다.⁴⁾

(1) 인간성장과 발달(인간이 성장하는 과정과 각 발달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특성과 필요들에 대한 이해), (2) 상담의 전반적인 이론과 기법(상담의 이론과 실재를 비롯해서 상담의 기법과 자기 이해를 비롯한 상담의 기본적인 과목들), (3) 그룹이해(그룹의 이해와 역동성, 발전과정, 집단상담의 방법과 기술들과 관련된 과목들), (4) 통계학(개인과 집단 상담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자료의 작성과 방법 등과 관련된 과목들), (5) 연구와 평가(기본적인 심리학과 관련한 주제의 연구 방법과 프로그램의 평가와 관련된 과목들), (6) 진단과 치료(상담에서 진단을 위한 DSM IV을 사용해서 문제의 진단과 처방을 하는 방법론, 진단을 위한 면담과 보고서 작성법 등과 관련된 과목들), (7) 전문가 교육(상담전문가로서의 역할과 기능, 상담전문가의 기구들과 관련된 역사들 그리고 상담자의 윤리와 관련된 과목들), (8) 사회와 문화(다민족 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이해, 문화와 인간의 상호작용과 발전과정, 다양한 문화적인 가치와 특성에 대한 존중감 교육 등과 관련된 과목들) 이외에도 진로상담, 부부와 가정상담, 상담자의 성 이해 등과 같은 과목들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원에서 이러한 과목들을 이수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학점은 상담전문가의 종류에 따라서 최소 48학점에서 60학점 정도이다.⁵⁾ 미국 신학교 중에는 상담사 자격증을 얻기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으며 이를 상담사자격증 과정(Licensure Program)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외에 일반 교회의 상담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상담 사역자 과정(Counseling Ministry)이라고 구분한다. 상담사자격증을 위한 프로그램의 과목들은 자격증을 위한 과목들을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각 학교의 자율성은 제한된다. 그러면 각 학교의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자.

덴버신학교(Denver Seminary)⁶⁾의 경우를 보면 상담사자격증 과정(Master of Arts in Counseling, Licensure)에서 62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목들은 자격증을 위한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62학점 중에서 상담과목 29학점 신학과목 33학점을 요구한다. 상담과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간성장과 발달에 관한 과목은 상담진단의 기초(Theoretical Foundations: Diagnosis) 2) 상담의 전반적인 이론과 기법에 관련된 과목으로는 상담임상의 기초(Clinical Foundation: Counseling) 3) 그룹이해와 관련된 과목은 집단상담과 집단경험(Groups in Counseling, Group Experience) 4) 통계학과 관련된 과목은 상담의 측정과 평가(Assessment and Measurement in Counseling) 5) 연구와 평가와 관련된 과목은 상담의 연구와 평가(Research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6) 진단과 치료에 관련된 과목은 임상진단의 기초(Clinical Foundations: Diagnosis) 7) 전문가 교육과 관련된 과목은 상담자 윤리(Professional Orientation) 8) 사회와 문화에 관련된 과목은 상담의 사회와 문화 연구(Social and Cultural Foundation of Counseling) 이 외에도 진로상담(Career Assessment in Counseling), 부부와 가정상담(Premarital and Marital Counseling)을 필수과목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 상담실습과목으로 상담실습 세미나(Practicum Seminar), 상담실습(Counseling Practicum), 상담 인턴쉽I,II,(Counseling Internship I,II)를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4학점은 상담과 관련된 선택과목을 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신학과목들은 성경해석학(2학점) 구약(6학점) 신약(6학점) 교회사(3학점) 조직신학(6학점) 영성과목(4학점) 멘토링(3학점) 설교학 또는 교사학(3학점)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상담사역자 과정(Master of Arts in Counseling Ministries, Nonlicensure)에서는 같은 62학점을 요구하고 이 중 신학관련 32학점과 상담관련 30학점으로 구분한다. 상담과목 중 필수과목은 상담임상의 기초(Clinical Foundation: Counseling), 인간발달의 기초(Theoretical Foundations: Development), 임상진단의 기초(Clinical Foundations: Diagnosis), 친밀감교육(Empathy Training), 집단경험(Group Experience), 상담자윤리(Professional Orientation), 상담의 사회와 문화 이해(Social and Cultural Foundations of Counseling), 지역사회 상담실습(Community-Based CPE)이다. 그리고 12학점은 본인이 필요한 과목들을 선택해서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풀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⁷⁾에서는 가족치료석사(Master of Science in Marital and Family Therapy)⁸⁾ 과정만 개설하고 있으며 일반 상담전공 석사과정은 없다. 가족치료석사과정에서는 총 106 학점을 요구한다.⁹⁾ 그 중에서 가족치료 관련과목(Marital and Family Therapy) 32학점, 임상훈련(Clinical Training) 18학점, 가족학(Family Studies) 16학점, 가족학연구(Family Research) 4학점, 신학(Theology) 20학점, 통합(Integration) 8학점, 선택(Elective) 8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풀러신학교의 상담대학원은 석사과정보다는 임상심리 박사과정에 더 치중을 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¹⁰⁾는 대학원과정에 성경적상담전공을 개설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상담사 자격증을 위한 과정이 아니며 그 대상을 목회자, 선교사, 캠퍼스사역자, 기독교관련단체 사역자, 일반 성도들로 규정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총 56학점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중 32학점이 상담관련 과목이고 24학점이 신학관련 과목이다. 상담관련 과목들은 다음과 같다. 성경적 변화의 역동(Dynamics of Biblical Change), 결혼상담(Marriage Counseling), 상담과 생리학(Counseling and Physiology), 인간성격론(Human Personality), 상담관찰(Counseling Observation), 아동상담(Counseling Children), 심리검사(Psychological Assessment), 성경적 변화의 방법(Methods of Biblical Change), 문제해결의 과정(Problems and Procedures) 등이 있으며 이 외에 상담실습 과목을 3과목 필수로 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신학 과목들은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 I,II), 교회사 개관(Survey of Church History), 개혁신학 개관(Survey of Reformed Theology), 변증학 개론(Introduction to Apologetics), 구약(OT for Ministry), 신약(NT for Ministry), 성경해석학(Biblical Interpretation) 등이다.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상담전공 과정은 Jay E. Adams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일반 심리학에 의존하는 상담을 거부하고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을 상담의 원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리폼드신학교(Reformed Theological Seminary)¹¹⁾는 상담전공(M.A. in Counseling)과 가족치료와 상담전공(M.A. in Marriage and Family Therapy and Counseling)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상담전공은 72학점을 요구하는데 그 중에서 상담이 53학점 신학이 20학점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이 3학점이다. 상담관련 과목들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Human Growth & Development), 심리병리학(Psychopathology), 상담과 임상치료의 원리와 실제(Theory & Practice of Counseling & Psychotherapy), 집단상담의 원리와 실제(Group Theories & Practice), 임상기술의 기초(Fundamental Therapy Skills), 중독 증(Addictions), 성상담 인턴쉽(Sexuality & Sex Therapy Internship), 임상기술 심화과정(Advanced Therapy Skills), 상담자의 법과 윤리(Professional, Ethical & Legal Studies), 상담실습(Practicum), 상담의 사회와 문화 이슈 연구(Social Cultural Issues in Counseling), 연구와 프로그램 분석(Research & Program Evaluation), 가족치료 개론(Introduction to Marriage and Family Therapy), 인턴쉽(Internship), 진로상담(Career & Lifestyle Development), 상담검사(Evaluation & Assessment), 지역사회와 상담(Counseling in Community Settings), 신학과 심리학(Psychology in Relations to Theology) 등이다. 신학과목들은 필수과목으로 실천신학 개론(Introduction to Pastoral & Theological Studies), 조직신학 개론(Systematic Theology Survey)이 있으며 나머지 신학과목들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족치료와 상담 전공은 66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상담관련 과목이 54학점이고 신학 관련 과목이 12학점이다. 특히 가족치료와 상담 전공은 임상을 중요시하며

1년의 임상실습과 500시간의 상담 그리고 100시간의 슈퍼비전을 요구하고 있다.

트리니티신학교(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¹²⁾는 상담사역자과정(The Master of Art in Counseling Ministries)과 상담사자격증과정(The Master of Art in Counseling Psychology)을 개설하고 있다. 상담사자격증 과정은 60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이 중 48학점 이상이 상담관련 과목이어야 한다. 상담필수 과목으로는 상담기술 훈련 (Counseling Skills Training), 정신병리학 개론(Foundations of Mental Health), 상담이론(Counseling Theories), 가족치료 개론(Theoretical Foundations of Family Therapy), 성격 발달(Personality Development), 심리연구 방법(Psychological Research Methods), 상담의 윤리와 이슈들(Ethics and Issues in Counseling), 심리병리학 (Psychopathology) 등이 있다. 이 외에 18-20학점은 상담관련 선택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그리고 4-6시간은 인턴십이나 논문을 선택할 수 있다. 신학관련 필수과목으로는 성경신학과 해석학(Biblical Theology and Interpretation), 조직신학 개관(Survey of Doctrine), 신학과 심리학(Psychology and Theology) 등이 있으며 이외에 한 과목은 선택할 수 있다. 상담사역자과정은 42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이 중 25학점 이상은 상담관련 과목이어야 한다. 상담필수 과목은 상담사역학 개론(Introduction to Counseling Ministries), 상담사역의 이슈들(Issues in Counseling Ministry), 상담 기술 훈련(Counseling Skills Training),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신학과 심리학(Psychology and Theology), 가정사역을 위한 목회상담(Pastoral Counseling for Marriage and Family) 등이 있다. 이 외에 8-9학점은 선택과목으로 택할 수 있다. 신학과목은 Biblical 신학과 해석학(Theology and Interpretation), 조직신학 개관(Survey of Doctrine), 신학과 심리학(Psychology and Theology)가 필수이며 이 외에 6-7학점은 선택으로 택할 수 있다.

카버난트(Covenant Theological Seminary)¹³⁾의 경우를 보면 총 6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그 중에 상담이 39학점이고 신학이 21학점이다. 신학과목으로는 구약 2과목 신약 2과목을 필수로 선택해야 하며 그 외에 하나님과

말씀(God and His Word) 그리고 인간 그리스도 그리고 구속(Man, Christ, and Redemption) 그리고 성령, 교회 그리고 종말론(Spirit, Church, and Last Things)의 3과목을 요구한다. 상담과목으로는 미조리 주정부의 상담사자격증(Missouri Committee for Professional Counselors for State Licensure)을 취득 하는 데에 필요한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담필수 과목들은 상담학 개론(Introduction to Counseling), 결혼과 가정상담(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이상심리(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현대문화 이해(Understanding Contemporary Culture), 위기와 변화(Crisis and Transition), 이론과 기술(Theories and Techniques), 상담실습(Counseling Practice), 상담과 윤리(Ethics and Counseling) 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 신학교의 상담진공 과정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상담교육에서 상담사 자격증 과정과 상담 사역자 과정을 분리해서 교육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학교 중에 상담사자격증 과정과 상담사역자 과정을 함께 개설한 학교는 덴버신학교와 트리니티신학교이다. 그리고 상담사자격증 과정만 개설한 학교는 풀러신학교, 리폼드신학교 그리고 카버난트신학교이다. 마지막으로 상담사역자 과정만 개설한 학교는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이다. 이 두 가지 과정의 대상은 분명히 다르다. 사역자 과정은 교회의 상담 사역이나 선교지의 상담 사역 또는 그 외에 기독교 관련 단체에서의 상담사역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둘째 각 학교마다 신학 과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 학교들마다 요구하는 과목이나 학점이 다르지만 작게는 12학점(트리니티)에서 많게는 33학점(덴버)까지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셋째 각 학교들이 요구하는 과목들의 이름은 다르지만 대부분 국가 자격고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과목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중 유일하게 상담사역자 과정만 운영하는 웨스트민스터를 제외하고 모두가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2. 한국 신학교 상담전공 교육의 역사와 커리큘럼

1) 상담교육의 역사

한국 신학교의 상담교육은 7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귀국하여 일부 신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때에는 일반 심리상담과 기독교상담의 구분이 없었다. 일반 심리상담 특히 칼 로저스학파의 이론이 득세를 하였다. 70년대 후반에 제이 아담스의 성경적 상담이 소개되어서 상담학의 성경적 조명이 시도되었다.¹⁴⁾ 80년대 후반에는 다양한 상담이론들이 소개되고 각급 학교에서 가르쳐졌다. 대부분 미국에서 상담을 공부한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상담이론들이 보급되었다. 이 당시만 해도 아직 한국에는 상담의 개념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90년대에 들어서 상담이 하나의 유행현상으로 나타났고 정규교육기관 이외에도 다양한 상담관련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었다. 일차적으로 교회에서 세미나 형식으로 개최되는 상담관련 강의들이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다. 한 해에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상담 세미나가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면서 좀 더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었다. 지역 교회에서 상담학교를 개설하고 평신도들을 상대로 상담교육을 하는 사례들이 많아졌다. 이 뿐 아니라 독립적인 상담연구소가 세워지고 교회가 아닌 외부 기관들이 여는 상담학교나 치유학교들도 많아졌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치유 세미나를 통한 내적치유도 상담교육의 활성화에 일조를 하였다. 교회나 기관의 상담교육 또는 내적치유를 통해서 상담의 필요성을 경험한 평신도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교육을 찾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평신도들의 욕구들과 함께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상담을 활용한 목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신대원의 목회상담을 전공하였고 또는 교육대학원의 교육심리나 상담심리의 과정에 입학하였다. 상담 교육의 필요들을 인식한 신학교들도 일반대학원 안에 상담전공 학과를 개설하고 사역자들과 일반 평신도들을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신학교도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가 작용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물리는 학과의 교

수들을 충원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신학교 안에 상담전공이 개설되고 많은 교수들이 채용되었다.

일반대학원의 한 전공으로만 존재하던 상담전공이 1997년부터 상담대학원 체제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최초로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서 상담대학원을 개설하였고 그 뒤를 이어서 여러 학교들이 상담대학원을 설립하였다. 그 후 현재까지 총 18개 상담대학원이 인가를 받아서 상담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 중에 몇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담대학원이 신학교 내지는 기독교 재단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다. 현재 신학교의 상담교육은 일반대학원의 상담학과와 독립된 상담대학원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에 소속된 학교들 중에도 상담교육이 상담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반대학원의 상담전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2) 상담전공 커리큘럼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에 소속된 학교 중 6개교의 상담대학원 또는 일반대학원의 상담전공 커리큘럼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¹⁵⁾ 성결대학교는¹⁶⁾ 신학대학원 안에 MA 상담전공을 개설하고 있으며 2년 과정이다. 이 과정의 졸업을 위해서는 24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필수과목으로는 기독교상담의 이론과 실제, 집단심리와 집단상담,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들이 있다. 이 외에 선택과목으로는 신학과 심리학 통합 세미나, 발달심리와 상담, 심리학자 연구, 노인심리와 상실, 죽음상담, 치유와 상담세미나, 가정사역과 상담, 주제별 기독교상담, 부모교육과 아동상담, 심리분석과 심리검사, 성경적상담 세미나, 실험설계와 통계분석, 위기상담학, 결혼과 성상담, 청소년 심리와 상담, 이상심리와 상담 등을 개설하고 있다.

한영신대는¹⁷⁾ 상담복지대학원 안에 상담전공을 두고 있으며 총 36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5학기 과정이다. 교육목표는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유능한 목회상담과 평신도 상담자, 기독교 상담자를 육성하는 것이다. 36학점 중 필수과목이 24학점이며 선택이 6학점 그리고 논문이 6학점이다.

필수과목으로는 상담학 개론, 성격심리학, 인간 성장과 발달, 집단상담,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 기독교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실습, 위기상담, 심리검사와 평가, 가족상담, 가정사역론, 이상심리와 상담들이다. 그리고 선택과목들은 정신건강론, 진로상담, 아동및 청소년 심리치료와 상담, 목회상담학이 있다.

총신대학교는¹⁸⁾ 상담대학원에서 성경적 상담학 전공과정을 두고 있다. 교육목표로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성경적 상담의 이론과 방법의 전수를 통해서 21세기에 요구되는 성경적 상담자의 자질을 기르는 것에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졸업을 위해서는 5학기동안 3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30학점 중 전공 필수과목이 14학점이며 선택이 10학점 그리고 논문이 6학점이다. 이외에 비신학 전공자들은 신학과목 8학점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필수과목은 결혼과 가정문제와 상담,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 상담실습, 인간발달과 성경적 상담, 심리검사와 평가, 이상심리와 성경적 상담들이다. 선택과목은 성문제와 성경적 상담, 성인 및 노인상담, 신학과 심리학, 위기/죽음과 임종상담, 청소년 상담, 커뮤니케이션과 성경적 상담, 문화와 성경적 상담, 기독교상담의 이론 연구, 아동 및 특수아동 상담, 여성문제와 성경적 상담, 인체생리와 성경적 상담, 집단상담 등이 있다. 신학 선수과목으로는 교의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기독교교육 등 총 4과목 8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는¹⁹⁾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기독교상담자를 배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상담 과정은 일반대학교 기독교상담 전공 과정과 상담대학원 과정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일반대학교 기독교상담 전공은 2년 4학기 과정으로서 총 30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이 중 논문이 3 학점이다. 상담대학원은 기독교상담학과와 가정상담학과로 나누어져 있다. 두 전공 모두 5학기 수업과정이며 모두 30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논문은 선택이다. 기독교상담과 가정상담의 공통 필수과목은 기독교상담의 이론과 실제, 심리이론과 기독교상담, 인터넷과 수퍼비전 그리고 상담실습이다. 이 외에 선택과목으로는 위기와 갈등상담, 이상심리와 기독교상담, 가정상담학, 가족치료,

아동과 청소년 상담, 집단상담, 치유와 용서, 심리검사와 기독교상담, 부부상담, 인간발달의 이해 등이 있다.

백석대학교는²⁰⁾ 진리와 자유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개인, 가정, 교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정사역자와 상담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상담대학원안에 가정상담 전공, 기독교상담 전공, 임상목회 교육상담 전공, 청소년상담 전공, 상담교육학 전공을 두고 있다. 가정상담 전공의 전공 기초과목으로는 상담이론, 가족상담 및 치료, 상담심리와 기독교상담, 교육심리학,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건강가정 현장 실습이 있고 전공 심화 과목으로는 가족생활 연구, 부부 교육,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가족 복지론, 아동상담, 연구조사 방법론이 있다. 기독교상담 전공의 전공 기초 과목으로는 상담이론, 가족상담 및 치료, 상담심리와 기독교상담, 교육심리학, 상담 실습 및 사례 연구, 건강가정 현장 실습 등이 있다. 전공 심화 과목으로는 기독교 위기상담, 정신 건강론, 신앙과 심리치료, 심리검사, 임상목회 교육 실제, 부부 교육, 이상심리와 심리치료 등이 있다.²¹⁾

국제신학교는²²⁾ 상담학석사 집단상담 전공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으며 상담 및 목회상담 전문가를 지향하고 있다. 석사과정은 총 4학기 과정으로 총 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커리큘럼은 이론과목과 임상과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론과목은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임상심리, 이상심리, 드라마치료의 이론과 실제, 부부치료의 이론과 실제, 위기치료, 슈퍼비전 등이 있다. 임상과목으로는 아리랑 풀이, 사랑의 관계 클리닉, 집단상담 실습, 집단 심리치료, 감수성 훈련, 부부치료 임상실습 등이 있다.

위의 여섯 학교 상담전공 커리큘럼을 분석하고 몇 가지 측면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 대학원 상담전공의 시수는 24학점에서 36학점까지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평균 30학점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성결대와 국제신대가 24학점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영신대가 36학점을 요구하고 있다. 성결대와 국제신대의 학점수가 낮은 이유는 두 학교의 상담전공이 일반대학교 안에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타 전공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학점 수를 24학점으로 제한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영신대는 논문 6학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36학점이 되었다. 그 외의 학교들은 모두 30학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총신대는 비신학 전공자들에 한해서 추가로 8학점의 신학 선수학점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학교에 따라서 56학점에서 72학점까지 다양하지만 평균 60학점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학점수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학교들이 미국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학점수가 적은 이유는 한국의 대학원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일정 시간의 학점을 넘지 않도록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일주일 중 하루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장을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담자를 교육시키는데 30학점은 너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부분의 상담 전공자들이 학부에서는 다른 전공을 공부하였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 교육은 처음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다. 상담의 초보자들에게 소위 전문가가 되는 과정을 단지 30학점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도 일주일에 하루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만나질 정도의 시간동안 수업을 받고 돌아가는 현실에서 내실 있는 상담 교육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 뿐 아니라 제한된 학점 때문에 신학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각 학교의 커리큘럼을 분석해 보면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 한영신 학교는 복지와 상담을 한 대학원 안에 두어서 서로 연계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전공필수 과목이 많고 전공 선택 과목은 적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들을 택할 기회가 적은 대신에 모든 학생들이 일관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총신대학교의 경우는 상담대학원의 커리큘럼이 성경적상담 전공이라는 틀에 따라서 이루어져 있다. 신학 선수 과목을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과목을 성경적상담과 연계한 교육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가장 특징이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성경적상담 전공 프로그램을 벤치마크 한 사례이다. 국제신학교는 집단상담 전공에 초점을 맞추어서 커리큘럼 구성을 하였고 집단상담과 관련된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전공교수의 전문 영역에 맞추어서 특성

화 한 것으로 보여 진다. 백석대학교는 상담대학원 안에 5개의 전공을 두어서 각각 특성 있는 과목들로 구성하고 있다. 다양한 전공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많은 과목들을 개설함으로써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성결대와 아신대는 필수과목을 최소화하고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아신대의 경우는 기독교상담학과와 상담학과 학생들이 일정한 학점에 한해서 서로 교차 수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반대학원의 상담전공은 논문을 필수로 하여서 좀 더 학문적인 교육을 시도하였고 상담대학원은 실습과 훈련에 더 비중을 두었다.

3) 한국 신학교 상담전공 커리큘럼의 방향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한국 신학교의 상담전공 커리큘럼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목을 새롭게 개설하거나 바꾸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상담교육의 목적을 재정립해야 하는 것과 직결된다. 신학교에서 교육하는 상담과 일반대학교에서 교육하는 상담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어떠한 상담자를 배출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다양한 과목들을 교육해서 졸업을 시킨다는 목적이 아니라 목적에 부합하는 과목들을 개설해서 교육하는 커리큘럼의 구상이 필요하다.

커리큘럼의 개선을 위해서 첫째로 어떤 종류의 상담을 하는 사역자를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국가 자격증을 위한 교육을 시키는 과정과 교회 사역자를 위한 교육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즉 일반 상담실에서 일할 상담자 교육과 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관련 기관에서 일 할 사역자 양성은 그 초점이 다르다. 아직 국가 공인 자격증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관해서 많은 혼선이 있다. 각 학교들이 분명한 주관을 가지고 어떤 상담자를 훈련할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둘째로 한국에 맞는 상담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미국 상담교육에서도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

해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많은 상담의 이론이나 기법이 소위 백인 중산층 사무직을 그 대상으로 발달된 경우가 많다. 그러기에 다민족 국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각 인종들의 문화에 민감한 상담을 할 것을 강조한다. 우리들도 상담 이론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한국 문화에 적절한 상담의 기법들이 습득되어야 한다. 각 학교의 커리큘럼에서는 아직 한국문화에 예민한 상담의 방법이나 기법들이 전무한 상황이다. 셋째로 신학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신학교 상담전공 학생들은 학부에서 비신학 전공자들이다. 신학교의 상담교육은 단순히 상담의 이론이나 방법을 배우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 최소한 신학의 기본적인 과목들은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학점수를 늘려서 더 많은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의 여건으로는 학점수를 늘리기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수업의 기간이 길어 질수도 있고 학교 수업을 하루 이상 받아야 하는 경우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신학교 상담 교육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신학 교육의 확충이 필요하다. 신학교육을 통해서 신앙 인격의 성숙과 기독교 상담자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다.

III. 닫는 글

신학교육의 목적은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학'이라는 학문을 습득하고 사역의 전문 기술을 연마하며 신앙적인 인격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²³⁾ 신학교의 상담자 양성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학문적 연구와 상담의 기술 그리고 상담자의 인격이 균형을 이루어서 교육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 사회는 점차 더 상담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 것이다. 이미 이혼 숙려 제도의 도입과 함께 전문 상담자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군대에서도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 군 상담자 제도를 도입하려고 추진 중

이다. 이 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순수한 전문 상담교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학과목을 담당하지 않고 상담에 전념하는 교사들을 훈련시켜서 채용하려고 준비 중이다. 교회에서도 조금씩 상담실을 개원하고 전문 상담자를 채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선교지에서도 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에 응하여서 신학교도 잘 준비된 전문 상담자들을 교육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상담교육을 위해서 커리큘럼을 연구하고 개선시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 고용수. "21세기 신학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과제". 『21세기 신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 심포지움 자료 (1999)
- 정정숙. "한국신학대학원의 상담교육 연구". 『성경과 상담』. 제1권. 2001.
- Holifield E. Brooks *A History of Pastoral Care in America* (Nashville: Abingdon Press. 1983).
- www.denverseminary.org, Denver Seminary Academic Catalog. 2005-2006.
- www.fuller.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Online Catalog. 2005-2006.
- www.wts.edu,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Academic Catalog. 2006-2007.
- wwwdev.rts.edu.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Academic Catalog. 2005-2007.
- www.tiu.edu. Trinity International University Academic Catalog. 2006.
- www.covenantseminary.edu, Covenant Theological Seminary Homepage.
- www.sungkyul.edu. 성결대학교의 홈페이지.
- www.hytu.ac.kr. 한영신대 홈페이지.
- www.chongshin.ac.kr. 충신대학교 홈페이지.
- www.acts.ac.kr.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홈페이지.
- www.bu.ac.kr. 백석대학교 홈페이지.
- www.kukje.ac.kr. 국제신학교 홈페이지.

[후주]

- 1) 여기에서 신학교라고 할 때에는 순수 신학교와 함께 기독교대학도 포함해서 지칭하는 표현이다. 현재 한국에서 순수한 신학교로 남아있는 학교는 드물다. 신학교로 출발한 대학들은 대부분 종합대학교로 탈바꿈하였다.
 - 2) 미국 상담대학원들은 신학사상 면에서 개혁주의와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대학원들이며 이 학교들의 최근 catalog를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 3) E. Brooks Holifield *A History of Pastoral Care in America* (Nashville: Abingdon Press, 1983), 356. 미국 목회상담의 역사를 탁월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술한 책이다. 특히 미국의 현대목회상담의 주제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전통적인 죄와 회개 그리고 구원과 성화에서 심리치료적인 자기에, 자기주장 그리고 자아성취 또는 자아실현으로 변화되어 갔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 4) 국가고시(National Counselor Examination)의 8가지 시험과목은 Human Growth and Development, Social and Cultural Foundation, Helping Relationships(and Marriage and Family), Group Work, Career and Lifestyle Development, Appraisal, Research and Program Evaluation, Professional Orientation and Ethics이다.
 - 5) 상담전문가 자격증을 위한 요구 조건이 미국의 주 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 인용한 자격증 조건은 Maine주의 자격증 요구 사항들을 기술한 것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Maine Department of Professional and Financial Regulation에서 얻을 수 있다. www.state.me.us
 - 6) www.denverseminary.org, Denver Seminary Academic Catalog, 2005-2006.
 - 7) www.fuller.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Online Catalog, 2005-2006.
 - 8) 풀러신학교의 가족치료 석사과정은 부부와 가족치료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커리큘럼은 전문가 시험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엄두에 두고 구성되어 있다. 부부와 가족치료협회 규정심의 위원회(Association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Regulatory Boards) 홈페이지 참조 www.amftrb.org 부부와 가족치료 상담전문가 시험(Marital and Family Therapy Examination)은 부부와 가족치료 협의회(Association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에서 주관한다. 시험은 5 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째는 부부와 가족상담의 실제(Practice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둘째는 평가, 가설, 진단(Assessing, Hypothesizing and Diagnosing) 셋째는 치료의 계획과 적용(Designing and Conducting Treatment 넷째는 치료과정의 평가와 종료(Evaluating Ongoing Process and Terminating Treatment) 그리고 다섯째는 윤리적 법적 전문가적 기준 유지(Maintaining Ethical, Legal, and Professional Standards)이다.
 - 9) 풀러신학교는 1년에 2학기제(semester)가 아니고 1년에 3학기(quarter)인 관계로 학점이 많다.
 - 10) www.wts.edu,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Academic Catalog, 2006-2007
 - 11) wwwdev.rts.edu,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Academic Catalog, 2005-2007.
- 상담전공은 올랜도(Orlando)캠퍼스에서 수업을 하고 가족치료와 상담전공은 잭슨

(Jackson) 캠퍼스에서 수업을 한다.

- 12) www.tiu.edu, Trinity International University Academic Catalog, 2006.
한국에 트리니티신학교(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공식적인 학교 명칭은 Trinity International School로 되어 있다.
- 13) www.covenantseminary.edu, Covenant Theological Seminary Homepage, Degree Requirements.
- 14) 정정숙, “한국신학대학원의 상담교육 연구”, 『성경과 상담』, 제1권, 2001. 정정숙은 80년대 초에 제이 아담스의 『목회상담학』과 로렌스 크랩의 『성경적 상담학』을 번역하여 출판함으로써 한국 교계에 성경적상담을 소개하였다.
- 15) 각 학교의 과정과 커리큘럼은 일차적으로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하였으며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세부적인 사항의 도움을 받았다.
- 16) 성결대학교의 홈페이지 www.sungkyul.edu.
- 17) 한영신대 홈페이지 www.hytu.ac.kr 참조.
- 18) 충신대학교 홈페이지 www.chongshin.ac.kr 와 2006학년도 상담대학원 카타로그 참조.
- 19)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홈페이지 www.acts.ac.kr 참조.
- 20) 백석대학교 홈페이지 www.bu.ac.kr 참조.
- 21)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은 과목의 분류를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공 기초와 전공 심화로 구분하고 있다.
- 22) 국제신학교 홈페이지 www.kukje.ac.kr 참조.
- 23) 고용수, “21세기 신학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과제”, 『21세기 신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 심포지움 자료(1999), 10.

【 Abstract 】

A Study on Counseling Major Curriculums of
the Theological Schools in Korea

Jun-Soo Kim
(D.Min.,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There has been a lot of need for counseling ministry in recent years due to the fast changes in the Korean society. In the last 50 years, Korean society went through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break up of an extended family system. These changes made people to suffer from unstable psychological state. However the history of counseling education in Korea has not been long. Especially the counseling program, training Christian counselors in the graduate level, in the seminary has begun in the last 15 yea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researching graduate counseling program in the seminary or the Christian universities in Korea. Six seminaries from Korea and six seminaries from the U.S. were chosen to compare the counseling curriculums. Each school's counseling curriculums were analysed in order to upgrade the counseling program. Six schools from Korea are Kukje Seminary, Baksuk University, Sungkyul University,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ChongShin University, HanYoung Seminary. Six seminary from the U.S are Covenant Theological Seminary, Denver Seminary, Fuller Seminary, Reformed Theological School,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Key words: Counseling, Education, Seminary, Curriculum, History

‘아가페’ (ἀγάπη) 상담에서 활용 가능한 상담방법과 그것의 교육적 요소에 관한 고찰(考察)

김 태 수 교수
(D.Min., 백석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필자가 정립해 가는 과정에 있는 ‘아가페’ 상담의 이론을 소개하고, ‘아가페’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그것의 교육적 요소에 관하여 고찰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상담의 다양한 기법이나 방법이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가페’ 상담의 상담방법들 가운데 다음의 5가지 항목에 국한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첫째, 적극적 경청(Active listening), 둘째 하나님의 말씀(God’s words), 셋째 내담자를 향한 ‘아가페’ 사랑(Agape love), 넷째 내담자의 생명을 살리는 교육(Education for client’s life), 그리고 다섯째 공감(Empathy)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주로 문헌 중심의 연구방법이며, 상담의 실천적 측면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담의 사례도 추가하였다.

오늘날 소개되는 상담의 이론들을 크게 분류해 보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기점으로 하는 일반상담의 다양한 이론들과, 기독교와 성경적 배경을 중심으로 체계화한 기독교상담의 이론들이 있다. 특히, 기독교상담과 관련하여 한국에 소개되는 이론들은 거의 대부분이 외국 학자들의 이론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신학에서 ‘민중신학’은 한국의 신학이론으로 외국에 알려져 있지만, 한국학자의 상담학 이론으로 외국에 알려진 이론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한국의 상담학자들 특히, 기독교상담학자들이 창조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이론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아가페 상담’이라는 이론을 체계화하고 정립해 가는 과정에 있으며, 본 연구도 그 연장선상에 있음을 밝혀 둔다.

중심단어 : 아가페 상담, 경청, 하나님의 말씀, 생명, 공감

I. 여는 글

‘아가페’(*ἀγάπη*) 상담은 ‘아가페’와 상담이라는 용어가 합성된 개념이다. ‘아가페’라는 용어는 유행가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세속적 차원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그리스 문화권에서 사랑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다. 첫째, ‘에로스’(eros)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성적(性的) 차원의 사랑으로 혼자서는 충족시킬 수 없는 이성(異性)이 필요한 사랑이다. 이 에로스의 표현은 신약성서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아가페’(agape)는 에로스와는 다른 차원의 사랑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신적(神的) 차원의 사랑이며 가장 고차원적 사랑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단순히 필요에 의한 상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사랑하라는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하나 밖에 없는 생명을 주심으로 ‘아가페’ 사랑의 진면목을 삶으로 몸소 보여 주셨다.

‘아가페’ 상담이라는 이론을 필자가 전개할 때, 성경적 근거는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이다. 그 내용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인데, 이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용어의 헬라어는 ‘아가페’(*ἀγάπη*)이다. 위의 내용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변론하는 과정에서 언급하신 것이다. 율법에 능통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test)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율법들 가운데 어느 계명이 크냐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둘째 계명을 언급하시면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대답하셨다. 예수께서 두 번째 중요한 계명으로 언급하신 것은 이웃사랑에 관한 것이었다. 이 때 ‘이웃’을 상담에 적용시킨다면, ‘내담자(來談者)’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상담에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수께서 언급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순서를 고려해 볼 때, '아가페' 상담에서 우선순위(priority)는 분명하다. 먼저 상담자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분한 교제를 가져야 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인도(引導)하심을 따라 상담해야 한다. '아가페' 상담에서 상담자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순결하고 심오한 지혜를 가지고, 이웃인 내담자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담할 필요가 있다.

II. 펴는 글

1. 적극적 경청(Active listening)

1) 경청의 정의와 중요성

경청(傾聽)은 상담에서 가장 기본적인 듣는 기술(skill)이다. 상담의 상황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와 상황을 정확하게 듣고 파악해야 효과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내담자의 문제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언급하는 말의 내용만 파악해서는 안된다. 내담자의 목소리나 얼굴 표정 그리고 수족(手足)이 은연중에 전달하는 비언어적(nonverbal) 메시지도 있게 마련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경청은 단순한 청취(聽取)가 아니라, 내담자를 향한 적극적 관심과 지지의 표현으로써 듣는 기술인 것이다. 그러므로 청취(hearing)와 경청(listening)은 구분되어야 한다.

경청의 정의와 관련하여 Robert Bolton은 경청이란 어떤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듣고, 그 사람에게 관심(involve)을 갖는 일련의 행위라고 언급한다.¹⁾

그는 이어서 경청의 중요성도 언급하고 있는 데, 경청의 중요성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시간 중에서 그 무엇보다도 듣기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는 사실과, 우리의 경청 능력은 우정, 가족관계, 그리고 직장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경청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Charles F. Kemp 박사는 오랜 기간 목회상담학을 가르쳤던 교수로서, 그의 지침서에서 목회상담의 다양한 기술들 가운데 경청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다. 그의 저서(*A Pastoral Counseling Guidebook*)에서 다루는 목회상담의 기술들은 첫째 경청, 둘째 감정의 반영, 셋째 질문, 넷째 해석, 다섯째 확신과 지원, 여섯째 대결과 권고, 일곱째 종교적 자원이다.²⁾

효과적인 경청을 위한 상담자의 자세와 태도에 Gerard Egan은 5가지 항목을 언급하고 있다.³⁾ 첫째, 내담자를 정중하게 똑바로 마주 대하라. 둘째, 개방된 자세를 취하라. 셋째, 내담자를 향하여 상담자는 몸을 기울이라. 넷째, 내담자와 적절한 눈의 접촉을 유지하라. 다섯째, 내담자를 대할 때 상담자는 자신의 긴장을 완화시켜라.

2) 경청의 종류

(1) 반영적 경청: 반영적 경청에서 반영은 감정의 영역, 태도의 영역, 그리고 내용의 영역이라는 3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⁴⁾

첫째, 감정의 반영은 내담자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그때 그때 반영해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어요?” 또는 “너무 슬픈 말씀이군요.”와 같은 표현으로 내담자의 감정을 반영하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둘째, 태도의 반영은 내담자의 언어표현 뿐만 아니라, 비(非)언어적 표현에 담긴 의미를 읽고 반영해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얼굴에 미소를 짓는군요.” 또는 “주먹을 꼭 쥐 그 이유를 알만 하네요.”와 같이 내담자의 무언의 표현들을 반영해 줌으로써 상담자의 이해와 관심을 내담자에게 표명해 주는 것이다. 셋째, 내용의 반영은 내담자가 표현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상담자의 언어로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지원적 경청: 상담에서 지원적 경청이란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들

을 때,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내담자가 희망과 용기와 삶의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위로하며 지원해 주는 경청기법이다. 이런 경청은 상담자가 항상 내담자의 입장에 서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어나 혹은 비언어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⁵⁾

(3) 방향제시적 경청: 상담에서 방향제시적 경청은 상담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어떤 주제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자극을 주는 창조적인 경청기법이다. 이런 경청기법에서 상담자가 사용하는 가장 긴요한 도구는 간단한 질문방법으로, 상담에 성공하려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존심과 기분을 해치지 않는 지혜로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⁶⁾

(4) 비언어적 메시지의 경청: Mehrabian은 실험을 통하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관찰을 한 후에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⁷⁾ 전체 표현 중에서 말로 좋아하는 표현(verbal liking)을 한 사람은 7%, 목소리로 좋아하는 표현(vocal liking)을 한 사람은 38%, 그리고 얼굴표정으로 좋아하는 것(facial liking)을 표현한 사람은 55%였다.

이와 같은 비언어적 행동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 채널이며, 언어적으로 전달된 메시지를 수정하거나 강조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Egan은 비언어적 행동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⁸⁾

첫째, 비언어적 행동은 말로 한 것을 확인(confirming)하거나 반복(repeating)하는 기능을 한다. 둘째, 비언어적 행동은 말로 한 것을 부정(denying)하거나 혼란(confusing)에 빠뜨릴 수 있다. 셋째, 비언어적 행동은 말한 내용을 강화(strengthening)시키거나 강조(emphasizing)하기도 한다. 넷째, 비언어적 행동은 언어적 메시지에 정서적인 색채를 입히거나 강도를 더해 준다(adding intensity). 다섯째, 비언어적 단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을 통제하거나 조절(controlling)하기 위해 대화(regulating) 중에 사용되기도 한다.

3) 경청의 교육적 요소

첫째, 상담자는 경청의 기술을 배우고 터득하여서 숙련된 경청자(listener)

가 되도록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서 경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경청의 중요성에 비하여 학교교육이나 종교교육에서 교과과정(curriculum)으로 경청을 비중 있게 다루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양한 직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연구해 보았더니, 그들이 깨어있는 시간의 약 70%를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에 사용한다고 조사되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9%는 쓰기(writing)에 할애되고, 16%는 읽기, 30%는 말하기에 사용되며, 45%는 듣기(listening)에 할애된다고 한다.⁹⁾

위에서 언급하는 조사 자료만 보더라도 경청이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행위인 청취(hearing)와 구분되므로, 효과적으로 경청하기 위해서는 경청의 기술을 배우고 터득할 필요성이 있다.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경청의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상담자가 효과적으로 경청하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경청의 기술을 배우고,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 곤경에 빠져서 자신의 문제를 경청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열어주기를 기대하는 내담자에게 상담자는 진지한 경청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둘째, 경청은 상담자가 자신(oneself)의 내면세계와도 내적대화가 필요함을 가르쳐 준다. 유능한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담자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自己) 자신에 대해서도 내적대화를 나눌 수 있고, 내면의 소리를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담자도 인간이므로 아무리 유능한 상담자라고 해도 완벽한 상담을 할 수 없고, 상담에서 완전한 태도를 유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자 자신과 내적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통하여 통찰을 얻을 수 있다. Egan은 상담자가 자기 자신과 나눌 수 있는 내적대화(internal conversation)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¹⁰⁾

(1) “내가 내담자를 언짢게 하고 있구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2) “내 마음이 방황하고 있구나. 나는 내일 내가 할 일에 대해 골몰하고 있다. 그 일은 떨쳐버려야겠다.”

(3)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가 있다. 그녀가 빠져 있는 자기 연민이 문제를 헤쳐 나가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동정하고 있다. 그녀의 자기 연민에 대해 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천천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4) “이 내담자는 과연 변화되고 싶은지 분명하지 않다. 그가 한 말들을 점검해 봐야겠다.”

2. 하나님의 말씀(God's words)

1) 하나님 말씀의 의미와 능력

여기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전수되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채택된 66권의 정경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언급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한다(요 8:32). 둘째, 인간을 치유한다(시 107:20). 셋째, 인간을 거듭나게 한다(약 1:18). 넷째, 인간의 무지를 깨닫게 한다(시 119:130).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히 4:12).

2)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언급된 내용을 성서에서 찾아본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경외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시 119:161).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수용한다(행 11:1).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벧전 3:1).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실행해야 한다(약 1:22).

3) 하나님 말씀의 교육적 요소

(1)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성경은 최상(最上)의 교육 교재: 성경은 최고의

교육 교재로써 손색이 없음을 「트리니티 말씀대전」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¹¹⁾ 성경은 거짓을 드러내고 악행을 고발하는 것 목적으로만(only) 기록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은 더 고상한 목적을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성경의 궁극적 목적은 죄악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못된 심성을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성경만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함 마음을 가진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전파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인간을 선하게 만들고 상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 교재이다.

(2) 삶의 문제에 적용: 하나님의 영감(靈感)이 내포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은 인간의 삶의 문제에 적용시킬 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열어줄 수 있고 삶의 지혜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간음의 문제를 삶의 문제에 적용시키고, 상담기법인 직면의 사례를 성경의 말씀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본문: 사무엘하(下) 12:1-20.

② 상담의 상황: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우므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③ 대화(상담)의 내용:

다윗1: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1: 당신이 그 사람이라. (중략)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惡)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헛 사람 우리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처(妻)를 빼앗아 네 처를

삼았도다.

다윗2: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2: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훼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
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이리이다.

④ 직면의 문제: 간음죄 & 살인죄

⑤ 직면의 과정: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직설적으로 정죄(定罪)하
거나 비난하거나 모욕(侮辱)을 주는 방법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story)를 자연스럽게 지혜롭게 활용함으로써 다윗 왕이 간음죄와 살
인죄의 문제에 직면(confrontation)하도록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이 바
로 그 사람이라.”는 표현은 다윗 왕으로 하여금 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도
록 만들었다(삼하 12:7). 그러자 다윗 왕은 왕이라는 절대적 지위와 체면에
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자백하고 인정함으로써 수
용(acceptance)하는 자세를 취하였다(삼하 12:13).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죄
를 인하여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회개(repentance)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삼하 12:16). 마지막으로, 다윗은 아버지로서 어린 아들의 죽음을 심
히 슬퍼하면서도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써 성화(sanctification)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다.

3. 아가페 사랑(Agape love)

1) 아가페의 정의

‘아가페’ (agape)는 에로스(eros)와는 다른 차원의 사랑이다. 이것은 하나
님의 사랑과 같은 신적(神的) 차원의 사랑이며 가장 고차원적 사랑이다. 예
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단순히 필요에
의한 상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적
이고 헌신적으로 사랑하라는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예수께서
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하나 밖에 없는 생명을 주심으로 ‘아가페’ 사랑의

진면목을 삶으로 보여 주셨다. 이런 차원의 무조건적 사랑, 헌신적 사랑, 그리고 희생적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과 관련하여 William. Barclay는 4가지 사항을 주장하고 있다.¹²⁾ 첫째,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비(非)이기적으로(selflessly) 사랑하셨다. 둘째,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희생적으로(sacrificially) 사랑하셨다. 셋째,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이해심을 가지고(understandingly) 사랑하셨다. 넷째,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용서함으로(forgivingly) 사랑하셨다.

2) 아가페의 특성

아가페 사랑의 특징과 관련하여 Anders Nygren 스웨덴 감독(스웨덴 교회의 신학적 발전에 크게 공헌한 룬트(Lund) 학파의 학자)은 4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다.¹³⁾

첫째, 아가페는 자발적(spontaneous)이며 비(非)동기적(unmotivated)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자발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동기로 제시될 수 있을만한 어떤 것도 인간 안에서 추구하지 않는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동기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을만한 가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는 죄인들을 찾아가신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발적이며 비동기적 본성을 드러낸다.

둘째, 아가페는 가치(價値)에 치우치지 않는다. 어떠한 종류의 가치판단(valuation) 개념도 하나님의 교제와 관련하여 용납되기 어렵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에게 향한다면 그 입장은 분명하고, 가치판단에 대한 생각은 배제된다. 그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인간의 인격이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약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차원의 사랑이다(마 5:45).

셋째, 아가페는 창조적이다. 아가페는 신적인(divine) 사랑이며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인 창조성에 참여한다. 아가페는 창조적 사랑이다. 사랑받을 가

치가 있는 대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 받을 자격도 없는 대상이 단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됨으로써 가치를 얻는다. 아가페는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가치를 창조한다. 아가페는 사랑하며 사랑함으로써 가치를 부여한다. 아가페는 가치를 창조하는 원칙이며, 이것은 아가페 개념의 가장 심오하고 궁극적인 특징이다.

넷째, 아가페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일으킨다. 아가페는 기독교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특징적인 내용을 결정한다. 또한 아가페는 그 창조적 본성에 힘입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주도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교제를 수립하는 주도권은 신적인 아가페에 놓여 있다.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시는 길이다.

Nygren의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필자는 그 표현이 더 세련되게 표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아가페의 특징 가운데 첫째 '아가페는 자발적이고 비동기적'이라는 표현에서 '비동기적'은 무조건적(unconditional)이라는 표현으로 언급되어야 개념이 쉽게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아가페는 가치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표현은 아가페는 가치중립적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가치에 의하여 조건적으로 영향을 받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아가페와 에로스(eros)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셋째, '아가페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일으킨다.'는 표현은 Nygren이 주장하는 내용을 반영한다면, 아가페는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길(통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사랑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잠 10:12), 두려움을 내어 쫓아준다(요일 4:18). 또한 사랑은 거짓이 없으며(롬 12:9), 마음을 같이 하고(빌 2:2), 오래 참아주는(고전 13:4)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상담자가 내담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신약성경의 언급을 살펴보면, 말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고후 2:8, 요일 3:18) 해야 한다. 또한, 자기 몸과 같이 하며(마 22:39)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마 22:37)

내담자를 사랑하고 상담의 시작부터 상담을 종결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아가페의 교육적 요소

첫째, 사랑은 감정이지만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술(技術)이기도 하다. Erich Fromm은 사랑을 기술(art)이라고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¹⁴⁾ '사랑은 기술인가?' 그렇다면 사랑에는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는 사랑의 기술적 측면을 주장하지만, 다수의 현대인들은 사랑은 즐거운 감정(pleasant sensation)이라고 믿는다. 다수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문제, 곧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나, 오히려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사랑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스럽게 되는가의 문제도 된다. 그런데 어떤 기술을 배울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2가지 부분이 있다. 하나는 이론의 습득(the mastery of the theory)이고 다른 하나는 실습의 숙달(the mastery of the practice)이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의학적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그가 의술에 숙달에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론적 지식과 실습의 성과가 그의 직관 속에 하나로 융합될 때까지 많은 반복된 훈련을 경험함으로써 의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의 원리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인간의 수준에서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아가페 사랑의 수준까지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론적 지식을 알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인간들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산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아가페 사랑을 실천한다면 더욱 성숙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가페 사랑은 기본적으로 인내의 필요성을 가르친다. 당시에 최고 수준의 학자였던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아가페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사랑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가페 사랑의 구체적 모습을 강조하며 기독교인들이 실생활에서 실천할 것을

교육하고 있다. 그가 언급하는 아가페 사랑의 모습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전 13:4-7)는 것이다. 이 내용들에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아가페 사랑의 기본 속성이 인내(忍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아가페는 무조건적(無條件的) 사랑, 타아(他我)중심적 사랑,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中心的) 사랑이라는 것과 그 사랑의 가치와 중요성을 상담자들에게 가르쳐 준다. 반면에, 에로스(eros)는 조건적 사랑, 자아(自我)중심적 사랑, 그리고 인간 중심적 사랑의 특성이 있다. 근본적으로 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론적 지식보다는, 한 인간의 무조건적 사랑, 헌신적 사랑 그리고 희생적 사랑인 경우가 많다. 인간사회에서 아가페 사랑의 가장 근사치적(approximate) 사랑은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머니’라는 명칭은 자식을 향한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내포하여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자식에게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요 그리움이다. 한 인간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에 젖게 되는 것은 어머니의 무조건적 사랑, 헌신적 사랑, 그리고 희생적 사랑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4. 내담자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 교육(Education for enriching the client's life)

1) 생명의 정의와 가치

생명의 정의와 관련하여 김성현은 생명이란 “사물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정신세계를 이루는 영과, 호흡을 통해 만들어진 기가 서로 교합하여 영기작용(靈氣作用)이 가능한 존재를 이른다. 즉, 형이하학과 형이상학적 그리고 상호관계성까지 모두 포괄한 생명의 개념으로서 생명작용이 가능한 존재 모두가 생명”이라고 주장한다.¹⁵⁾

생명의 가치와 관련하여 인간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하여 Albert Schweitzer는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간은 다른 생명체를 대할 때, 자신의 생명의지를 대할 때와 똑같이 생명에 대한 외경심(畏敬心)을 갖고 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¹⁶⁾ 다시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생명의 가치에 대하여 성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강조하고 있다. 한 생명의 가치는 천하만큼 소중한 절대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본문에서 천하(天下)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코스모스(κοσμος)로써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의미한다.

2) 생명의 종류

신약성경에는 생명과 관련된 헬라어 단어가 3가지 나온다. 첫 번째 단어는 프쉬케(ψυχη, Psyche)이다. 그 의미는 호흡, 생명(력), 영혼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육체적 생명(마 2:20), 인간이나 짐승들의 생명(고전 15:45), 또는 영혼(눅 12:19) 등등의 용례(用例)가 있다. 신약성경의 ‘프쉬케’는 구약성경의 네페쉬(nephesh)와 같은 의미이다.

두 번째 단어는 비오스(βιος, Bios)이다. 그 의미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의 외적 모습이다. 사용된 사례로는, 생명의 지속(벧전 4:2-3), 생명의 활동(행 26:4) 등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 단어는 영생(永生)의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세 번째 단어는 조에(ζωη, Zoe)이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프쉬케나 비오스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신약성경에서 요한(John)은 이 단어를 36회, 바울(Paul)은 37회나 사용하였다. 이 단어의 의미는 John Wilkinson에 따르면, 시간의 양(量)과 관련된 생명이 아니라, 시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부패에 의해 손상되지도 않는 영원과 관련된 질적(質的)인 영생(eternal life)이다.¹⁷⁾

이 단어가 사용된 사례로는 영원한 생명(요 3:16), 하나님의 생명(요 5:26), 그리고 크리스천들 속의 그리스도의 생명(고후 4:10-11)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생명은 '프쉬케' 나 '비오스'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조에'이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가페' 상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고 생명을 살려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고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생명의 가치가 천하(天下)보다 귀하다고 강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상담자가 내담자의 생명을 천하같이 귀하게 여기며 상담에 최선을 다한다면 내담자는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3) 생명의 교육적 요소

첫째, 아가페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생명을 살리는 가르침이 절실히 요망된다. 생명과 교육의 주제와 관련하여 프뢰벨은 중요한 교육관을 제시해 주는 데, 그에게 있어서 교육은 생명을 살리는 교육이다.¹⁸⁾ 그에게 있어서 인간의 삶은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교육의 연속이다. 그리고 그가 강조하며 주장하는 교육의 기능은 교육만이 인간의 삶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¹⁹⁾

그는 인간이 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지, 그 중요한 이유를 2가지로 설명한다.²⁰⁾ 첫 번째 이유는 진실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한 시대를 표현하는 것은 몇 개의 개별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 속에 있는 각기 자유로운 다수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점 때문이다. 즉, 한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교육적으로 살고,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다른 이들과 동일하다고 느끼며 생활하게 됨으로써 개체로부터 점차 의식적인 가치를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둘째, 모든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생명체는 그 자체로써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내담자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가페 상담은 내담자의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상담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내용은 생명의 주제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이다. A라는 내담자 학생의 부친은 현재 연세가 70대 중반이고, 시골출신이지만 두뇌가 우수하여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주 전근을 다녔는데, 성격은 불같이 급했다고 한다. 그녀는 중학교 3학년의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가끔씩 들어오는 아버지가 술에 취하여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여러 여자들을 집에 데려다 자면서 외도를 하였기 때문이다. 중3 시절에 이미 세 번째 여자를 보게 되었고, 부친의 행패로 그녀는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사춘기에 접어든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합의이혼이 아니라 강요된 일방적 이혼이었다는 것이다. 그녀의 부친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모친을 무자비하게 때려서 이혼도장을 받아냈고, 기독교인인 모친은 딸을 만나지도 못한 채 황급히 집을 나가버렸다고 한다. 그 후 23세가 되어 성인 초기에 접어들었을 때, 모친의 강요에 의하여 술을 입에 대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술은 안하지만, 결혼 전에 노름빚이 상당했고, 결혼 후에도 노름과 외도로 생활비조차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시누이의 시집살이가 심하고, 남편의 계속되는 노름과 외도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여 첫째 아이를 유산하게 되었다. 첫 아이를 유산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수면제를 무려 98알 먹고 두 번째 자살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25세에 다행히 아들을 하나 낳았지만, 남편이 도박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설상가상으로 숨겨놓은 여자가 나타나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 다행히 혼자지만 아들을 5년간 키우면서 부모와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애정결핍이라는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하여 아들에게 지극한 정성을 쏟아 부었다. 이 아들은 그녀가 너무 힘이 들어도 죽을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던 그런 귀중한 존재요, 그녀가 살아 숨쉴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장손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빼앗기게 되었다. 너무나 충격이 커서, 그녀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했으며 술에 의지하는 타락한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 후 피신하여 일본에서 갈비집을 운영하던 모친을 찾아가 하루에 3시간 반씩만 자면서 3년간 일하며 돈을 모았다. 귀국해서 아들을 찾기 위해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소

송에 실패했다. 지금은 가끔씩 아들이 다니는 학교로 찾아가 숨어서 몰래 아이를 지켜보다가 돌아오곤 한다고 한다.

34세에는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고(高)2 때 집안의 살림살이와 심지어 자신의 교과서까지 가져가 버렸던 부친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찾아갔다고 한다. 16년 만에 만나보는 아버지여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만들어 방문하곤 하였다. 그런데 동거하는 여자가 딸이 찾아오는 것이 싫다고 이혼을 요구한다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친아버지에게서 차갑게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그 후(後) 35세에 어떤 남자를 만나 약혼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이미 전처에게 아이가 들어나 있는 상태였다. 시어머니가 될 사람은 아이를 낙태시킬 것을 강요하고 인사하러 오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 약혼자도 아이를 낙태시키라고 강요를 하였는데,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아이를 사산하게 되었다. 아이가 사산된 후, 네 번째로 손목을 끊고 자살을 또 시도하였다.

최근에는 일본에 계신 모친이 사기를 당하여 빚을 지고, 가게를 팔고도 해결이 안 되어 야쿠자에게 감금까지 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모친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운영하던 가게를 팔고 아파트를 팔아서 전(全)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곤경에 처해 있다. 요즈음은 학교 강의가 끝나자마자, 오후 4시 30분부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활비를 벌고 있으며 혼자 살고 있다고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만학도이기 때문에 두뇌회전이 느리고, 육체적 피곤이 누적되어 삶이 고단하다고 고백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학생의 경우, 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기구하고 질길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학생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생존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소중한 생명이며, 살아갈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다.

5. 공감(Empathy)

1) 공감의 정의

그리스어 *empathia*는 en+pathos의 합성어으로써 '안에서 느끼는 고통이나 열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공감을 의미하는 단어 'empathy'가 유래한다. 공감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공감이란 내담자의 상황, 감정 그리고 동기에 동질의식을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다(*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공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로저스(Carl R. Rogers)에게 있어서 공감이란 "만약(as if)이라는 내용을 지탱하면서 내담자의 사적인 세계를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²¹⁾ 목회상담학자인 켄프(Charles F. Kemp)에 따르면, 공감은 다른 사람의 내면적 참조의 틀 속으로 들어가려는 상담자의 사고로써 안쓰러워하는 것(sorry for)이 아니라, 함께 느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²²⁾

2) 공감의 내용

Robert R. Carchuff는 공감이란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하나의 방법이고 기술이기 때문에, 다음의 3가지 내용에 대하여 공감적 반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³⁾

(1) 내용(內容)에 대한 공감이다. 내담자가 언급하는 이야기의 내용에 대한 공감은 내담자의 경험 속에 있는 결정적 요인들을 명료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예를 들자면, "당신의 말은...." 또는 "바꾸어 말한다면,"와 같은 표현으로 내담자가 언급한 말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였음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내용을 정확하게 공감하기 위해서는 6하원칙(when, where, who, what, why, how)이 포함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감정(感情)에 대한 공감이다. 이것은 내용에 대한 공감의 후속행동으로써, 내담자의 내면세계와 관계되는 정서적 경험을 다루는 중요한 기법이다. 효과적으로 감정에 공감하려면 3가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내담자의 행동을 잘 관찰해야 한다. 둘째, 내담자가 사용하는 어휘들을 주의 깊게 듣고, 내담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을 예상해 보아야 한다. 셋째, 상담자가 관찰한 감정표현과 그 내용이 내담자의 경우에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를 감별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당신이 느끼기에는”와 같은 유형의 표현이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감정의 공감에서 반응하기 난감한 점은 내담자의 감정이 폭발해서 과격해지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상담자는 “당신의 감정이 드디어 폭발하셨군요.” 또는 “지금 당신은 감정의 고삐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군요.”와 같이 반응해 줌으로써, 내담자의 감정을 천천히 식혀줄 수 있다.

(3) 의미(意味)에 대한 공감이다. 이 공감은 내용에 대한 공감과 감정에 대한 공감에 대하여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의미에 대한 공감은 내용과 감정 속에 담긴 이유(理由)를 파악할 때 전달된다. 효과적으로 의미에 대한 공감을 하려면, 먼저 내담자의 말을 동일한 의미가 드러나게 다른 말로 바꾸어 내용을 요약해 주고 (예: You're saying that ...), 그 다음은 표현된 감정을 언급하며 (예: You feel ...), 그리고 이유를 말해준다 (예: You feel ... because ...). 그러므로 완전한 공감은 내용과 감정 그리고 의미의 3가지 항목이 연결되어있어야 한다. 특히, 감정에 대한 공감은 다른 항목들보다 중요한 핵심항목이 된다.

3) 공감의 과정과 방법

공감의 과정에 대하여 Donald A. Tubesing과 Nancy L. Tubesing은 그 과정을 4가지 항목으로 주장한다.²⁴⁾ 첫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조율하는 단계이다. 둘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계이다. 셋째 단계는 타인의 감정에 조율하는 단계이다. 넷째 단계는 이해한 감정을 반영하는 단계이다.

공감의 방법과 관련하여 Egan은 기초적 차원의 공감을 8가지 방법으로 요약하여 정리해 준다.²⁵⁾

(1)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내담자로부터 전달된 메시지에 주의 깊게

집중하라.

- (2) 특별히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경청하라.
- (3) 이런 핵심적 메시지에 대하여 자주 그리고 간략하게, 편견을 갖지 말고 방응하면서도 내담자가(긍정, 부인, 설명, 명료화, 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탐구적인 자세를 취하라.
- (4) 부드러우면서도 내담자가 중요한 문제로부터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 (5) 다른 것을 강조할 어떤 구실이 생기기 전까지는 감정과 내용에 대하여 반응하라.
- (6) 천천히 중요한 화제와 감정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 (7) 반응을 보낸 다음 당신의 반응의 정확성에 대해 긍정하든지 부정하든지에 관한 단서 들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집중하라. 내담자가 초점이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 확인하라.
- (8) 내담자의 스트레스나 저항의 신호들을 살펴보고 이것들이 당신의 정확성의 결핍에서 오는 것인지, 지나친 정확성에서 오는 것인지 판단하도록 하라.

또한 Egan은 기초적 차원을 넘어서는 심화된 차원의 공감 방법을 7가지로 상세하게 제시한다.²⁶⁾

- 첫째, 한번만 암시된 것을 표현하라.
- 둘째, 핵심적인 자료들을 요약하라.
- 셋째, 상담과정에서 유인물을 활용하라.
- 넷째, 주제를 확인하라.
- 다섯째, 고립된 부분을 연결시켜라.
- 여섯째, 내담자로 하여금 제시된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도와주라.
- 일곱째, 대안적 참조의 틀을 제시하라.

4) 공감의 교육적 요소

(1) 공감은 교육의 대상: 공감은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학습되는 후천적 속성이므로 적절한 역할-실험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르쳐

야 할 교육의 주제이며 대상이될 수 있다.²⁷⁾

(2) 공감의 교육적 가치(와 이유): 첫째, Aspy(1975)는 공감이 긍정적 인간발달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Gazda와 Evans(1990)는 공감이 효율적인 학습을 초래하는 본질적 요소이며 상담과 교육 분야에서는 공감적 관계가 내담자의 기능과 학생들의 성취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높은 수준의 공감을 제공하면, 교육적 관점에서 학생들의 성취도가 높아지고 학교 생활을 보다 즐겁게 경험할 수 있다(Rogers, 1983). 넷째, 아동들은 높은 사회적 행동과 자기-존중감 그리고 낮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Miller, 1976). 다섯째, 아동들의 동료 관계와 우정의 발달에 관한 연구들도 공감의 긍정적 기능을 보고하고 있다(Cohen, 1983). 여섯째, 아동 학대의 경향이 있는 부모들은 공감정서가 결핍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Egeland & Sroufe, 1981).²⁸⁾

(3) 공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가능성: Goldstein(1988)은 가장 적절한 공감 교육은 공감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공감의 4가지 요소(지각적 요소, 공명적 요소, 인지적 요소, 의사소통적 요소)를 교육하는 6단계의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²⁹⁾

그 프로그램들은 첫째, 준비훈련이다. 이 단계는 공감 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적 효과를 위하여 피교육자가 공감을 구성하는 요소와 기능들에 대해 충분한 사전(事前) 지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둘째, 상황에 대한 지각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계로 '상황지각 훈련법'을 Goldstein은 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훈련자는 피교육자가 실제생활의 장면에서 정확하게 지각하고 만족스럽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킨다. 셋째, 정서적 공명의 요소 훈련단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들은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명상(Goleman, 1977), 초점 맞추기(Gendlin, 1984), 감각 인식 훈련(Brooks, 1974)과 같은 것들이 있다. 넷째, 인지 요소 훈련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Carkhuff(1969)의 공감적 반응식별을 위한 훈련절차를 들 수 있다. 그리고 피훈련자들을 얼굴표정에 노출시킨 후, 그 표정에 대한 정확성

판단(인지적 분석)을 연습시키고 아울러 그 정확성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을 주는 방법을 결합하여 공감의 인지적 측면을 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다(Lopez, 1975). 다섯째, 의사소통 요소 훈련의 단계로 이것을 훈련하기 위한 방법들은 대부분 일정한 교육과 모델링(modeling), 역할놀이와 행동적 시연 그리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섯째, 전이와 유지를 위한 훈련의 단계로 앞에서 언급한 4가지 요소(지각적 요소, 공명적 요소, 인지적 요소, 의사소통적 요소)와 5단계의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바를 실제생활이나 훈련 이외의 상황에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말한다.

III. 닫는 글

이상으로 ‘아가페’ 상담에서 활용 가능한 상담방법들과 그것의 교육적 요소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필자의 이론인 ‘아가페’ 상담은 아직 완성된 이론은 아니고, 이론의 체계화와 실제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듬어 가는 과정에 있다. 필자가 이런 시도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외국의 기독교상담 학자들에게 한국의 학자로서 이론을 소개하고, 이 이론이 인용되어 학문적 연구의 주제로 토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다. ‘아가페’ 상담이 다른 상담의 이론들과 다른 특징이라면, 상담자는 상담을 통하여 내담자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내담자에게 ‘아가페’ 수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아가페’ 수준의 사랑을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실천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양하고 적절한 상담의 기법들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가페’ 상담에서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세임에는 틀림없다. 그리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시키고, 전인적 인간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상(the image of God)을 회복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가페’ 상담에서 상담자의 책임이며 목표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겠다.

【 참고문헌 】

- 김계현. 「카운슬링의 실제」. 서울: 학지사. 2002.
- 김성현. 「생명사상의 새 지평」. 안동: 한빛. 2005.
- 김태수. 「성경인물과 리더십 유형」. 서울: UCN. 2005.
- 박성희. 「공감, 공감적 이해」. 서울: 원미사. 1994.
- 서석남. 「프뢰벨 생명교육 I」. 서울: 국민서관. 2001.
- 이기춘 외 5인. 「목회임상교육」. 서울: 감리교목회상담센터. 1998.
- Barclay, William. *The Gospel of John*. Edinburgh: Saint Andrew. 1975.
- Bolton, Robert. *People Skills*. New York: Simon & Schuster, 1979.
- Buchanan, Duncan. *The Counseling of Jesus*. 천정웅 역. 「예수의 상담과 실제」. 서울: 아가페. 1987.
- Collins, Gary R. *Innovation Approaches to Counseling*. 정동섭 역. 「창의적 상담접근법」. 서울: 두란노. 1995.
- Egan, Gerard. *The Skilled Helper*. Belmont: Wadsworth. 1975.
- The Skilled Helper*. 제석봉, 유계식 역. 「유능한 상담자」.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3.
- Fromm, Erich. *The Art of Loving*. 시시영어사 편집국 역. 「사랑의 기술」. 서울: 시시영어사. 1987.
- Hiltner, Seward. *Pastoral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1969.
- Kemp, Charles F. *A Pastoral Counseling Guidebook*. Nashville: Abingdon. 1971.
- Nygren, Anders. *Agape and Eros*. 고구경 역. 「아가페와 에로스」.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 Rogers, Carl R.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김기석 역. 「상담과 심리치료」.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6.
- Schweitzer, Albert. *Aus Meinem Leben und Denken*. 천병희 역. 「나의 생애와 사상」. 서울: 문예출판사. 1999.
- Wilkinson, John. *The Bible and Healing*. 김태수 역. 「성경과 치유」. 서울: UCN. 2005.

[후주]

- 1) Robert Bolton, *People Skills* (New York: Simon & Schuster, Inc., 1979), 48.
- 2) Charles F. Kemp, *A Pastoral Counseling Guidebook* (Nashville: Abingdon Press, 1971), 48-49.
- 3) Gerard Egan, *The Skilled Helper*, 오성춘 역, 「상담의 실제」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출판국, 1992), 91-92.
- 4) 이기춘 외 5인, 「목회임상교육」 (서울: 감리교목회상담센터 출판부, 1998), 74-77.
- 5) 이기춘 외 5인, 83.
- 6) 이기춘 외 5인, 85.
- 7) Gerard Egan, *The Skilled Helper*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Inc., 1975), 68.
- 8) Gerard Egan, *The Skilled Helper* (Pacific Grove: Brooks/Cole, 2002), 84.
- 9) Robert Bolton, 30.
- 10) Gerard Egan, *The Skilled Helper*, 제석봉, 유계식 역, 「유능한 상담자」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3), 129-130.
- 11) 「트리니티 말씀대전」, 257.
- 12) William Barclay, *The Gospel of John*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75), 150-151.
- 13) Anders Nygren, *Agape and Eros*, 고구경 역, 「아가페와 에로스」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78-83.
- 14) Erich Fromm, *The Art of Loving*, 시사영어사 편집국 역, 「사랑의 기술」 (서울: 시사영어사, 1987), 6-15.
- 15) 김성현, 「생명사상의 새 지평」 (안동: 도서출판 한빛, 2005), 32.
- 16) Albert Schweitzer, *Aus Meinem Leben und Denken*, 천병희 역, 「나의 생애와 사상」 (서울: 문예출판사, 1999), 179.
- 17) John Wilkinson, *The Bible and Healing* (Edinburgh: The Handsel Press, 1998), 23.
- 18) 서석남, 「프뢰벨 생명교육 I」 (서울: 국민서관, 2001), 13-14.
- 19) 서석남, 21.
- 20) 서석남, 22.
- 21) Carl R. Rogers,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61), 284.
- 22) Charles F. Kemp, 29.
- 23) 이기춘 외 5인, 108-114.
- 24) Donald A. Tubesing and Nancy L. Tubesing, *Tune In: Empathy Training Workshop* (Listening Group, D. Box 3151. Duluth, Mn. 55808), 16-19. 재인용.
- 25) Gerard Egan, 1975, 89.
- 26) Gerard Egan, 1975, 136-149.
- 27) 박성희, 「공감, 공감적 이해」 (서울: 도서출판 원미사, 1994), 37.
- 28) 박성희, 319-320.
- 29) 박성희, 327-333.

【 Abstract 】

A Study on the Counseling Methods of 'Agape' (ἀγαπή)
Counseling and its educational elements

Tae Soo Kim
(D.Min., Baekseok University)

Today various theories in the field of psychology have been introduced: From Sigmund Freud's psychoanalysis to Carl Rogers' client-centered therapy. On the other hand, Jay E. Adams who was a Protestant counselor introduced a theory of 'nouthetic' counseling which was based on the bible as a biblical counseling.

While researching various theories of psychology and counseling, the writer needed to give a presentation of an evangelical theory that could give the life and the 'agape' love of Jesus Christ to the client. In this reason, the writer tried to deal with the issue of 'agape' counseling through this thesis. The writer got a hint from Jesus' examples of counseling in the bible and made a new title as a new paradigm of counseling among a lot of theories.

In the body of this thesis, the writer dealt with the issue concerning not only the concept of 'agape' counseling but also the biblical background of it. The issues concerning the purpose of 'agape' counseling were dealt and five items about counseling methods were explained: Active listening, God's words, the art of 'agape' love, the passionate teaching for enriching the client's life, and empathy.

This 'agape' counseling is the first theory that the writer presented as a new paradigm of Christian counseling, but not the final theory that the writer will present as a completed theory. Therefore, there is the task for the writer to fully formulate the theory of this 'agape' counseling among the various theories of Christian counseling.

Key words: 'agape' counseling, God's words, client's life, listening, empathy.